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학교**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상하동 506번지) T. (031) 714.7091 F. (031) 8005.7093 [www.osmca.or.kr](http://www.osmca.or.kr) | [www.smca.or.kr](http://www.smca.or.kr)

발행일 2020.5. 발행처 샘물학교(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인 윤민선

# SMCA

## SAEMMUL STORY

은혜샘물유치원 · 은혜샘물초등학교 · 샘물중고등학교



인사말 | 리더십 인터뷰 | 샘물 이모저모 | 온라인 개학 풍경 | 세품아 | 인도에서 온 편지 | 샘물학교 교육 과정 | 졸업생 이야기 | 후원자님께

2020 **봄여름호**  
샘물이야기

# 이사장의 편지 *Message*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와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 후원자, 지역교회 동역자들께 편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변화가 큼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도 교육부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침에 적극 동참해 4월6일 온라인 개학으로 2020학년도 봄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수업 플랫폼 마련과 온라인 콘텐츠 준비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동영상 수업과 담임 선생님과 화상 소통, 화상 복상 등으로 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생중계로 개학예배를 진행한 샘물중고등학교는 매주 공동체예배 또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화상 앱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교육현장의 변화 앞에 학부모들 또한 수업 공백에 대한 우려, 새삼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기독교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교육이 줄 수 없는 기독교성과 대안성, 그리고 탁월히 준비된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피드백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니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해 주셨습니다.

샘물학교는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성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변함없는 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 지역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학교 구성원 모두 이 사명을 성실히 이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샘물교육선교회 이사장,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총괄교장

윤만선 드림  
*윤만선*





샘물교육선교회 이사장

윤만선

은혜샘물유치원 원감

신민숙

은혜샘물초등학교 교장

유경재

샘물중고등학교 교장

양석현

## 샘물 리더들에게 듣는 샘물의 변함없는 가치, 그리고 미래

2019년 12월 1일, 윤만선 이사장님을 필두로 한 샘물 2기 리더십호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2기 리더들이 바라보는 샘물의 유산과 변함없는 가치, 그리고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었습니다.



### 윤만선 샘물교육선교회 이사장

은혜샘물유치원·은혜샘물초등학교·샘물중고등학교 총괄교장

**변함없는 사명: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성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함**  
 샘물학교의 설립 이념은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성도의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섬기는 예수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명을 위해 학교는 가정, 교회와 함께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갈 것입니다.

####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을 위한 동역자로 지역교회와의 협력 강화

학령 인구가 줄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이 일에 지역 교회와의 동역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샘물학교는 지금까지 60여 개의 후원협력교회의 동역으로 든든히 서 왔습니다. 그동안은 장학금이나 학교 홍보 등 학교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학생의 영적 성장에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축으로 지역교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도 개인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평생 교회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를 우리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협력자로 초청하고 지역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동역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목실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 교회 청소년 담당 사역자와 교류, 협력하거나 학생의 신앙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해결할 수도 있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연합예배를 지역교회와의 소통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탐색과 은사계발을 위해 지역교회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거나 학부모교육도 지역교회와 협력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역량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에 보다 집중하고 영적인 성장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도움 받아 진정으로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성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협력과 동역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 샘물의 기독교학교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역할과 책임 있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민족 지도자 배출 등 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없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보면 다시 모든 교회가 기독교학교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교회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학교에

“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을 위한  
 동역자로  
 지역교회와  
 협력 강화  
 ”





대한 동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재학 학생이 500여 명으로 규모가 성장한 학교이기에 작은 교회가 구상하는 기독교학교의 롤 모델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단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정리하고 나누는 역할은 분명 의미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목회자들과 기독교학교 운동에 대해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정례화된 자리도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면서 지역 사회 목회자들이 학교와 동역하면서 비전을 자유롭게 품을 수 있도록 동기와 도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

기독교교육이 꼭 기독교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샘물과 기독교학교에 함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녀를 샘물에 보내는 학부모로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는 우스개 말이 있는데 당장 우리 자녀에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조급함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교육을 통해 몸으로 익히고 배운 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낼지 조급함을 버리고 보다 긴 안목으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라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에도 학교와 교사를 계속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신민숙 은혜샘물유치원 원감**

신민숙 원감선생님은 작년 12월부터 원감 선생님이로 은혜샘물유치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샘물유치원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 받는 것을 확신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은샘유치원 아이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품수업을 체계화시킬 예정입니다.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언어, 노래, 미술활동,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품의 정의를 배우고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경청'의 성품을 시작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훈련, 자연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중입니다. 그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은샘유치원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앞 텃밭 일부를 유치원이 분양 받았는데요. 텃밭 활동, 숲 체험 활동과 생태활동 등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텃밭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은샘유치원 아이들을 만나면 반갑게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경재 은혜샘물초등학교 교장**

유경재 교장선생님은 올해 1월부터 은혜샘물초등학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임 리더십이 갖고 닦아 온 샘물교육선교회의 미션, 사명, 핵심가치에 더 집중하면서 은혜샘물초등학교의 고유한 기독교학교교육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인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에서 정한 필수 교육내용뿐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차별화된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람데오 및 영성훈련, 성품훈련 및 교리교육, 마을공동체 훈련 및 마을 프로젝트 운영, 세계를 품은 아이들 등 다양한 기독교학교 프로그램을 보다 더욱 내실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년군별, 교과별 교원연수 및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은사 및 재능 탐색을 돕기 위해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 과학 분야 수준별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태권도, 줄넘기, 축구 등으로 체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별 생활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심리사회적, 학습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3년 과정 부모교육 커리큘럼 개발, 학부모 주축의 학부모 성장지원팀 운영 등을 통해 가정-교회-학교가 함께 하는 연합 모델이 공동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석현 샘물중고등학교 교장**

양석현 교장선생님은 샘물 영어교사 4년, 교장대행 2년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의 문화가 혁신과 변화를 위해 학습하는 문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 찾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같이 기도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를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직장에서건, 교회 목장에서건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기독교교육과 성경적 세계관이 미래의 험난한 파도를 타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4차산업혁명TFT를 미래역량강화TFT로 개편해 운영 중이며 가을학기부터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기주도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장기 목표를 세워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학교 섬김/봉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및 대안학교 네트워크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샘물의 이모저모 *2019년 겨울과 2020년 봄소식을 전합니다.*

##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졸업예배



은혜샘물초등학교 제 3회 졸업예배와 샘물중고등학교 제 6회 졸업예배가 2020년 2월8일(토)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문제로 졸업생 직계 가족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모든 참석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체열검사를 필수로 진행했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는 올해 17명이 졸업하였고, 샘물중고등학교는 이번 6기 46명의 졸업생을 포함, 지금까지 259명이 차올라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H**

## 겨울방학 교사연수



은혜샘물초등학교 선생님들의 2020학년도 봄학기는 학생들보다 3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2월3일(월)부터 3주 동안 학교의 방향 및 교과별 교육운영 계획을 논의했고 특별히 모든 교사가 올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안을 발표,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을 깊이 공유하고 수업 현장을 가깝게 공개하고,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도

신임교사 연수 및 교사연수(2/14~19)를 진행했습니다. **H**

## 보아스사회공헌재단, 무상 건강검진 지원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사랑의 열매 등이 협력병원과 함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샘물 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의료검진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3월18일(수) 진행된 대안학교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정부 차원의 기본 의료 지원이 부족했던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는 수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레이스치과(용인 동백), 힐링안과(서울 강남), 아주웰이비인후과(수원 영동) 등 3개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고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학교, 학년, 반별로 함께 이동해 협력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H**

## 2020년 봄학기부터 무상급식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가 2020년 2월 초 단체급식소로 지정됨에 따라 2020년 4월 이후 개학과 동시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식의 형태는 학교 직영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김

동규, 부숙진 선생님의 주도로 운영됩니다.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급식재료비 외에 소정의 급식비가 청구될 예정이며,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의 경우, 학교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해 초등, 중고등과 마찬가지로 무상 급식에 준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H**

## 엔닷라이트, 샘물에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주)엔닷라이트(www.ndotcad.com)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엔닷캐드'를 샘물에 무상 지원합니다. '엔닷캐드'는 3D 프린팅 작업 시 사용자의 생각을 보다 창의적이고 쉽게 표현하고 제작물로 구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어 온 IT 교육과 3D 프린팅 수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H**

##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019년 마을 프로젝트 걸어서 세계속으로



학년과 과목의 경계를 넘어 유치원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8개의 마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은혜샘물유치원과 초

등학교의 마을 프로젝트. 2019학년도 하반기 주제인 '걸어서 세계속으로' 전시 및 발표가 11월15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5, 6학년 학생들이 의논하여 제안한 주제 중에서 전교생 투표를 통해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마을마다 나라를 정해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탐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게시물을 만들어 다른 마을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H**

## 한 해를 감사하며 은샘 가족의 밤



12월20일(금) 은샘 가족의 밤이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가족의 밤에서는 앙상블, 태권무, 우산춤, 무언극 등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마음껏 자신을 표현했으며 특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H**

## 2019년 861권의 성경을 세계로.. 제2회 바이블마라톤도 진행 중

샘물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진행했던 2019년 제1회 바이블 마라톤이 51명의 완주와 861권의 성경을 기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확산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성경 통독 1장 당 50원을 적립해 원바디

Onebody를 통해 성경을 세계 각지로 전달했습니다. 2020학년도 제 2회 바이블마라톤도 운영 중입니다. **H**

## 확 달라진 2020 자기경영서

2020 자기경영서가 새로워졌습니다. 2020 자기경영서는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를 주축으로 2019 가을부터 12명 이상의 교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지혜를 모은 결과물인데도, 샘물의 철학을 매일의 삶 속에 녹이고 적용하도록 도전하는 한편, 가정예배 지면을 신설하고 부모님도 함께 자경서를 쓰도록 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경서는 의견을 수렴해 더욱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 샘물학교 리더십 이취임식



2019년12월19일(목) 오후7시30분 샘물학교 리더십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하는 2019 샘물중고등학교 마지막 연합예배 후 진행된 이취임식은 박은조 전 이사장님, 권문영 전 총괄이사님, 이찬형 전 영성연구센터장님 등 샘물의 1기 리더들을 감사로 환송하고, 윤만선 이사장님, 고영민 총괄이사님 등 샘물의 신임 리더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학교를 비전으로 품고 2008년 학교 설립 준비부터 2009년 샘물중학교 개교,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 동안 샘물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박은조 전 이사장님과 권문영 전 총괄이사님, 그리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겨주신 이

찬형 전 영성연구센터장님 등 샘물의 1기 리더들에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 감사사를 전했습니다. 이취임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

## 교사 동정

2020학년도 봄학기 맞이 휴직/복직/신임교사를 소개합니다.

- ▶ 휴직교사: 김학미(유치), 김은주(영어, 중고등)
- ▶ 복직교사: 김윤미(수학), 안은경(영어), 유승민(미술, 이상 중고등)
- ▶ 신임교사: 오세영(유치), 고은미, 곽은송, 김샤론, 박수지(이상 초등담임), 정도희(성경), 권다혜(영어), 이수정(음악), 지상봉(체육), 유승희(통합지원, 이상 초등), 강희도(음악), 권예은(성경), 권연정(과학), 김현주(영어), 우성철(미술, 이상 중고등), 오상영(후원인사), 이문자(재정, 이상 지원본부)

**H**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이야기 담았습니다. [www.smca.or.kr](http://www.smca.or.kr)



##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 온라인 개학 풍경

### 교육부 개학 정책에 발맞춰 4월6일 온라인 개학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가 4월6일 온라인 개학을 진행했습니다. 샘물의 온라인 개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문제로 교육부가 지난 3월3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년에 차이를 둔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 구글클래스룸 등 온라인 수업 환경 마련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전망과 발표로 급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샘물은 지난 3월부터 비영리단체로 구글 G suite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및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사들은 구글의 온라인수업 지원 앱인 구글클래스룸과 화상 소통을 위한 줌Zoom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연구, 준비해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가정학습기간 동안 학습안내 동영상과 줌 화상대화를 통해 온라인 수업 연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는 모든 가정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온라인 개학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 또한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화상 앱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밤낮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된 온라인 개학이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며 학생과의 소통과 수업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더욱 절실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 샘물중고등학교,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개학 예배

개학예배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생중계되었는데요. 넓은 강당, 샘물관 4층 안대옥홀에는 마스크를 쓴 선생님들만이 드문드문 앉아 예배를 드리는 풍경이 낯섭니다. 이 특별한 개학을 맞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학교와 그리운 등교길, 그리고 개학일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와 학생들을 맞이하는 샘물의 전통을 이 영상에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동영상 플랫폼에 접속해 개학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 운영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의 경우 맞벌이 등 가정의 상황으로 낯시간 자녀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위해서는 4월6일부터 긴급 돌봄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에 참여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각각 온라인 수업, 음악, 미술, 체육,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은혜샘물초등학교, 예체능 과목 오프라인 수업 병행

은혜샘물초등학교는 5월6일부터 예체능 수업에 한해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3일 등교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을 2교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와 손도 못 잡지만 화상으로 보던 얼굴을 직접 보니 학생도 선생님도 반갑기만 합니다.



이상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꼈던 샘물의 온라인 개학 풍경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smcs.or.kr](http://www.osmcs.or.kr) | [www.smca.or.kr](http://www.smca.or.kr)



“내 꿈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야겠다고...”

# 2019학년도 은혜샘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세품아 이야기

2019 세품아

은혜샘물초등학교의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국내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다녀오는 국내 세품아가, 겨울방학에는 해외 선교지를 다녀오는 해외 세품아가 운영됩니다. 2016년부터 4회째 진행된 이번 해외세품아는 영어캠프가 중심이 된 해외이동수업(3주)와 해외아웃리치(1주)로 함께 운영되어 5학년 학생 13명과 6명의 교사가 2019년도 12월30일부터 필리핀 바기오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 해외이동수업

유니온 국제학교에서 3주 해외이동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수업, 자기주도 학습, 운동, 아침 경건회, 저녁예배 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 해외아웃리치

바기오 공립학교에서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필리핀 현지 교회인 헤세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따갈로그어와 영어로 동시에 드려지는 현지 교회로,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만난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의 사역에 마음이 뜨거워져 그 다음 날의 낙빠나완 빈민가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20명의 필리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낙빠나완 마을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졌지요.

낙빠나완 마을은 뿔발 위에 놓인 아슬아슬한 대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닿을 수 있는 가난하고,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만난 주민들을 교회로 초청했는데 200여 명의 마을 주민 중 무려 70여 명이 함께 하는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간 한국전통 부채춤, 영어 워십과 드라마 공연, 따갈로그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선교 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 중에 선교사가 추가될 정도로 너무 의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이번 사명인 것 같아요.

스캇 드라마, 찬양, 춤을 친구들에게 들려줄 때 친구들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해도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감사했고 나의 꿈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헤세드 교회 사람들이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이 감동스러웠습니다.

낙빠나완 친구들은 밥도 우리처럼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도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나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먼저 가서 기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낙빠나완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불평만 하고 맨날 좋은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 제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 Letter 01

##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셨다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영성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매주 금요일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인도하시는 분의 말씀이 너무 좋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 같다. 일요일에는 인도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너무 너무 열정이 넘쳐나서 우리 한국교회보다 더 재밌고 교회가 는게 싫지 않았다. 금요일예배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20년 넘게 인도에 살면서 겪으신 일들을 간증하셨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뻥치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분 한분 점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할수록 제 마음속 깊숙히 파고들어 마지막 기도회 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마저도 부끄러워 엄청 속여서 울었다.

여기 와서 꿈이 생겼는데 엄마는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꿈은 파충류 삽이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어랑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내가 파충류 삽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요?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셨다.**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한국으로 떠난다. 인도캠프 WVA 정말 내 인생에 그래프 속에 높게 위치할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후배들에게 강추. **나도 가기 싫었지만 와보니까 참 좋다.** 한국에서 내가 남보다 없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서 남보다 많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파충류삽 주인이 되고 싶은 샘물 9기

## 인도에서 온 편지

지난 겨울방학, 샘물의 7-8학년 학생들은 샘물의 자매학교 미국 WCA(Westminster Christian Academy, St.Louis)로 약 1달간 겨울캠프를, 9학년들은 해외이동수업의 일환으로 인도캠프를, 그리고 10학년들은 당진과 김제의 지역교회와 필리핀 세부에 기독교학교 Holyseed Christian Academy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해외 기독교학교 학생을 섬기는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9학년의 영적 성장과 도전을 위해 2019 겨울방학 7주 인도캠프가 올해 처음 시도되었는데요. 첫 시도인만큼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24명의 학생들이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 복상과 영어 수업,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이어졌던 금요일예배와 인도 현지 교회에서 인도인들과 함께 드렸던 주일 예배... 동아리활동과 운동, 그리고 남인도문화체험과 웨마학교 일일교사 봉사활동까지... 우리 학생들의 7주 인도 생활, 그 후기를 일부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겨울 샘물에서 있었던 다양한 활동과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 INDIA



## Letter 02

# “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느껴졌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질까봐 나는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의 인도여행은 이 한 단어가 빠지면 설명할 수가 없다. 나에게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중 어떤 성장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나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함과 의문으로 다가온 때는 각각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로 ‘간절함’은 우리가 수련회를 했을 때 다가왔다. 2020년 1월 11일, 우리는 에스더 선생님 집을 갔었다. 에스더 선생님의 어머니인 배영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셨다. (중략) 하나님은 이 분을 만나주셨고 속명여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선교의 길로 인도해주셨고 이 분은 순종하여 이 인도 땅에 오게 되었다.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주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개와 감사를 동시에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의문’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느끼게 되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다. 이 영화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내용이다. 이 영화에는 두 선교사가 나온다. (중략) **내 생각으로는 한계가 느껴졌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질까봐 나는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주께 구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나쁜 답을 주셨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문득 떠오르게 해 주셨다.** 첫 번째 간절함과 두 번째 의문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기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통하여 주신 주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나도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인도 땅에 보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인도에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한 샘물 9기

※글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www.smca.or.kr](http://www.smca.or.kr)

섬 기 는 예 수 제 자 샘 물 학 교

샘물 교육 선교회

# 샘물학교 교육과정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 은혜샘물 유치원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낸 누리과정

### ‘빛’을 주제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



오세영·신은미(원감)·이은진 선생님

은혜샘물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발맞춰 이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나’, ‘봄과 동식물’, ‘교통기관’, ‘세계 여러 나라’ 등 누리과정이 제안하고 있는 월별 생활 주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낸 누리과정. 어떤 모습인지 지난 학기 진행했던 은혜샘물유치원 수업을 들여다 볼게요.

누리과정이 제안하는 11월의 생활주제는 ‘환경과 생활’이었어요. 저희는 이 주제 안에서 ‘빛’을 테마로 잡아 약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빛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은 왜 빛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빛의 유용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집에서 빛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해서 같이 발표도 하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자유롭게 상상도 해보고 눈을 가리고 잠깐 이나마 생활해보면서 해 봤어요.

그리고 ‘빛’으로 자신을 소개한 분에 대해 공부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빛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림자는 빛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존재, 빛을 따라다녀야 하는 존재이니,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그림자예요. 어디든 예

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그려보고 그림자 밟기 놀이도 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고 그림자의 얼굴도 꾸며 보았습시다.

새학기, 누리과정이 제안하는 첫 주제는 ‘유치원과 나’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내가 만나게 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의 이름도 써 보고, 얼굴도 그려보고, 친구들에 대해 배워 볼 겁니다. 축복의 노래도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친구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 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묵상하는 어른들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 은혜샘물 초등학교

은혜샘물초등학교의 주제통합수업

## 다채롭고 유연하게 교과목 너머 아이들의 동기에 집중하는

창의적 융합과 협력적 문제 해결. 미래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에서 특히나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지요. 은혜샘물초등학교에는 과목의 경계를 넘어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해가는 주제통합수업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대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거기에 학부모까지 가세해 일이 점점 커지는가^^ 하면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매년 커리큘럼이 달라지는 은샘초의 주제통합수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확장되는  
유연한 수업

**이다니엘 선생님(6학년 담임)** 6학년 2학기 세계문화를 배우는 단원을 약 한 달 남짓 18차시로, 독서, 체험학습, 발표, 토론 등 주제통합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각자 관심 가는 나라를 선정해 조사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봉사할지를 발표하는데 아이들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주제가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어 갔어요.

첫 해 아이들은 은샘초 해외 선교 프로그램이었던 세피아(세계를 품은 아이들)의 여운이 남았던지 선교 대상국들을 선정했고 기아와 가난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해에는 여행과 자연에 관심 갖고 나라들을 선정해 자연 탐구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세 번째 해에는 유럽에 관심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교사들의  
협업이 있어  
가능한  
주제통합 수업

**권미진 선생님(당시 5학년 담임)** 미술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5학년들이 요즘 하늘 그리기를 하는데 매일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대의 하늘만 보는 것이 아쉽다고 했어요. 마침 그때 과학시간에 별과 행성을 배우고 있었는데 밤하늘을 그리면 멋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우주에 대한 신비를 교과서로만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끼던 참이어서 밖으로 나가보자고 의기투합해 1박2일 천문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감한 부모님들의 열정으로 졸지에 5학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엠티가 되었답니다.

**기아름 선생님(미술)** 천문대에 가서 노을 지는 하늘과 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직접 그려보고 하늘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보기도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었길래 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놀라게 깨닫고 고백했는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나중에 학부모님들을 통해 하늘 탐구가 다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감상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뻐했습니다.

**임경아 선생님(당시 1학년 담임)** 1학년, 2학년이 한 팀이 되어 약 한 달간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슬기로운생활 여름 단원에 에너지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주제로 여름 날씨 ▶ 에너지와 전기 ▶ 환경보호를 주제로 점점 확장해 갔어요. 4명의 선생님들이 본인이 잘 하는 분야를 맡아 환경 오염에 대한 책을 읽고(국어), 전기의 생산 원리를 배우고 후지심과 구리선으로 전기 발생 원리를 알아보고(과학), 전기 절약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홍보포스터(미술)와 홍보캠페인송(음악)도 만들어보았어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통해 서로에게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천천히 집중하며  
아이들이  
부쩍 성장해요

**이다니엘 선생님**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니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렵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해내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세계 문화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그네를 돌보아야한다는 내용과 연계해 기아와 난민에 대해 배우고 이번에는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 선생님 대 학생으로 나눠 토론대첩도 진행했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다소 어려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에 나온 '자연도태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분노하더라구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권미진 선생님** 교실에서 행성과 별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밤하늘을 보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다시 들으니 아이들이 감탄하면서 생생하게 받아들였어요. 깊이 있고 즐거운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아름 선생님** 밤에 하늘을 보면 낮에 보는 하늘과 달리 하늘이 얼마나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지 더 잘 알 수 있지요. 사진이 실재를 담을 수 없다는 것도, 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그림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본 것을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이들을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켜서 시작해도  
마지막은  
자기 프로젝트  
그래서 더 신나요

**임경아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작하게 되지요. 특히나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아우들이니 마을프로젝트를 해도 형들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도 전기 절약 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하고 점심시간에 다른 학년 교실과 식당에 가서 형들을 상대로 구호도 외치고 본인들이 만든 홍보캠페인송도 부르고 포스터도 보여주는 홍보 활동을 하면서 무척 신나게 진행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캠페인송 가사를 짓고 노래 연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놀라웠어요.



확장되는  
아이들과 만드는  
삶으로 연결되는  
수업

**임경아 선생님** 날씨와 에너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청지기적 사명과 실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면지 노트를 만드는 등 자원절약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전기를 아낀 만큼 아프리카로 전기를 기부하는 라이팅 칠드런 비영리단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다니엘 선생님** 세계 다양한 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도록 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운이 좋아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큰 감명을 받아 쓰지 않은 학용품 등을 모아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동기부여를 주면 이렇게 확장되는 아이들과 함께 삶으로 연결되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임경아 선생님** 지식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하는가 답을 찾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주제통합교육은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학 건축 공간지각

#### 올해는요... 6학년의 경우

올해는 수학의 도형을 배우면서 IT 수업(3D 프린팅)과 미술 수업을 연계해 구조물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중이라고 하십니다. 전개도로 배우는 수학시간 도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공간지각으로 배움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사회적경제 파트와도 연계하는 것도 기획중이사라는데, 늦어진 개학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임경아(교감) · 이다니엘 · 권미진 · 기아름 선생님

## 6학년 주제통합 수업 과제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독후감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 Book report 1

다음으로 기아 문제가 지구의 과잉 인구를 조절해준다는 자연도태설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자연도태설은 기아가 세계인구 증가를 조절 시키는 좋은 기능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은 출생률이 많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의 성장을 경험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인구 증가율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치사한 일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동물이나 식물에게나 적용되

는 자연도태설로 설명하려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인권과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이 책의 저자는 기아의 문제와 관련한 진실을 밝히면서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아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 용기가 부럽다.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여 좋은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싶다.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학생

#### Book report 2

일곱째로 난 소말리아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다. 정부는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각 군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아마 살기가 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고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소말리아 사람들은 정말 속이 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 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는 정말 좋고 유익한 책 같다. 세계의 여러 기아들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들이 기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주고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을 해결할 방법을 얘기해 주니 말이다. 난 이 책을 읽은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학생



샘물중고등학교 국어과

##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샘물의 국어선생님이 말하는 국어라는 과목을 사랑하는 이유, 바로 국어를 통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어로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가 우리의 말과 글 속에 담겨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정신적·물질적 자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는 국어는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는다면, 언어는 때때로 인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샘물의 국어 수업은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수업을 위해 기도하며 씨름하는 샘물의 국어과 선생님과 함께 샘물의 국어과 수업 현장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 6인 6색 샘물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다채로운 샘물의 국어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려워진만큼 기초부터 튼튼히, 7학년 국어”

### 마루샘 강가혜 선생님/중등 국어

“같이의 가치!” 오늘도 함께함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외치는 우리의 구호로 수업을 엽니다. 7학년 국어 수업, 다른 무엇보다 함께 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용해, 재화, 배타성...’ 배우는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진 중학교 공부. 국어 시간 뿐 아니라 과학, 사회 등 다른 교과를 공부하면서도 축약된 한자 단어가 늘어 모르는 단어가 많아집니다. 7학년 국어에

서는 특별히 나만의 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공부하며, 독서하며, 뉴스를 보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정리하며 자료를 모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본 어휘를 대체할 다채로운 단어를 친구들과 함께 검색하고 사전을 찾으며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이 단어들을 이용해 글을 쓰며 나의 것으로 체화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 상대를 따뜻하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샘물 7학년 국어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사계절, ‘사랑의 언어’를 심는 8학년 국어”

### 시온샘 김혜은 선생님/중등 국어

샘물에서 국어를 배우며 제자들이 속한 곳을 ‘화목’하게 하고,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수업을 준비합니다. 봄에는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직접 부모님께 읽어드리고,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답장을 받아 제출하는데, 그 내용들이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몽클합니다. 여름에는 ‘내게 있는 것(행 3:1-10)’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내게만 고유하게 내려주신 무언가에 대해 묵상하며, 테드식 강연을 하게 됩니다. 친구의 강연이 끝나면 ‘네게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 피드백을 적어

주는 시간을 갖는데,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귀히 여기는 과정이 참 따뜻합니다. 가을에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의 의미를 공부하며 직접 실천해보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어문규범을 배우며,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교재자가 되는 것으로 ‘사랑의 언어’의 흐름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사계절, 국어 수업을 통해 사랑의 언어를 심으며, 제자들의 인격과 삶 안에 작은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국어를 배우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 연준샘 한승대 선생님/학과장, 연구팀 팀장

대학원 시절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 활동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국가교육과정 양질의 것임은 틀림없지만 학생을 살리는 생명력은 없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10년전 기독교 교육을 만나고 샘물중고등학교의 연구팀에 속하게 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녹아있는 국어 교육이야말로 생명력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육이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어렵기만 했던 문법에서 보이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찾아내고,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규칙을 배웁니다. 규칙이 무너졌을 때 의사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경험합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네의 인생에 담긴 애환과 희망을 만나고, 비문학을

통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신명기의 규례를 보며 왜 이런 행동들을 하라고 하실까 고민해보며 나와 내 옆의 친구를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 어려운 내용들을 읽어가며 세상의 설명문들도 잘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원리들을 찾아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그런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그러하시듯 내 친구도 사랑하신다는 걸 학생과 함께 배워갑니다. 그래서 국어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졸업여행과  
연계한  
9학년 국어”

## 만나샘 전인성 선생님/중등 국어

9학년 첫 봄학기 수업. 선생님께서는 말하기와 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평소 친구와 수다라면 자신 있는 나였지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기에 부담백배, 왜 하필 발표수업이란 말인가! 5분 동안 자유주제로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어떨까?’ 고민 끝에 기타를 들고 나갔다. 발표 내내 떨렸지만 마지막에 준비한 기타 연주를 마쳤을 때 아이들의 박수와 함성이 들렸다! ‘진심을 다해 준비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구나!’ 여름과 가을학기에는 문학을 배웠다. 시는 짧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게 신기했다. 직접 시를 지

어보고 친구와 서로의 시를 해석하며 시와 가까워졌다. 박경리의 소설 <불신시대>를 읽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깊이 고민도 했다. 9학년 졸업 여행지인 ‘통영’에 갔을 때 박경리 문학관에 가보아서 이 소설은 더욱 잊지 못할 것 같다. 국어가 겨우 재밌어질 무렵, 겨울학기에는 문법을 배웠다. 솔직히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나도 고등학생이니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알아야겠지. 앞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니 9학년이 참 좋은 때였구나 싶다. 아! 벌써 9학년이 그립다.

<9학년 샘물이의 일기>

##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는 학문적 전문성이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10학년에서 심화된 작품과 문법 지식에 대한 기초를, 11학년에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학 작품을, 12학년에서 진로와 대입을 대비하는 심화 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 국어의 출발을 담당하는 하늘샘과 고등 국어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 논술의 하꿈샘을 소개합니다.



“고등 국어의  
시작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10학년 국어”

## 하늘샘 박고운 선생님/고등 국어

봄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모두가 ‘선물’을 소재로 한 편의 수필을 쓰고 나눕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아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친구의 내밀한 이야기에 모두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숙연해 집니다. 여름에는 끈기와 성실함을 요구하는 문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해한 친구들이 설명해주고 다시 설명을 들

으면서 함께 여름을 보냅니다. 가을에는 옛 글 속에서 우리말과 글이 변화해온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도 쉽지 않은 글들을 읽고 이해하는 동안 가을은 가고 겨울이 옵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겨울은 문학 작품 덕분에 따뜻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웃 사랑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수업은 고등학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법에서 보이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찾아내고,  
문학을 통해 우리네 인생에 담긴 애환과 희망을 만나며 비문학을 통해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읽어 내고, 성경을 읽으며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반드시 국어를 알아야 하기에 국어라는 과목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샘물의 자랑,  
12학년  
인문 논술”

## 하꿈샘 김지훈 선생님/고등 국어

12학년 논술은 여느 샘물의 수업과는 다르게 ‘논술 전형’이란 목표가 있기에 망목적으로 결과만을 좇지 않길 바라며 수업을 준비합니다. 논술은 정확한 독해 연습을 바탕으로 비교하고, 논증을 하고, 비판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방학 때부터 밴드를 통해 소통하며 매주 제시되는 문제를 풀고 밴드에 올리면 세 분 선생님의 친절하고 세심한 첨삭이 이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찍은 해

설 영상과 영상을 찍으며 직접 풀었던 논술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글과 해설영상 및 예시답안을 보며 다시 쓰기로 복습을 하고 다음 과제를 제출합니다. 수업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글을 읽는 방법들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어진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선생님들의 첨삭과 해설을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의 독해와 작법을 수업을 통해 배우기를 바라봅니다.

[편집자주] 인문논술 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대안학교 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년 이상 배우고 세심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교육 영역에서 대비반이 운영됩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4명의 선생님이 논술전형 준비 학생들을 지원하며 선생님 한 분 당 학생 2-3명의 비율로 매우 심도 깊은 피드백이 이뤄집니다. 샘물은 매년 1-2명이 논술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이걸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네요~

# CLASSES

## 다채로운 선택 수업

논리적 말하기, 글쓰기와 발표

고등학교 선택수업은 샘물의 국어를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데요. 앞서 소개한 12학년의 인문 논술 외에도 10, 11학년에서 각자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다음 과목을 선택해 듣습니다.

### 논리적 말하기(디베이트)

논리적 말하기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토론 수업입니다. 기본적인 논리 전개 방법, 입안문 만들기, 공적 말하기 등 종합적으로 발표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입니다.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는 한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안문을 모두 준비하고 토론 시작 직전에 동전던지기에 의해 찬반이 결정됩니다. 2분간의 회의 후에 토론이 시작되고 토론 중간에 작전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팀이 어느 쪽 입장이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주제를 다방면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게임 형식과 관심있는 주제가 만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디베이트 주제들, 이렇습니다**

- ① 18세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
- ②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2회전).
- ③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5회전).
- ④ GMO식품을 허용해야 한다(3회전).
- ⑤ 노키즈존은 폐지해야 한다(4회전).
- ⑥ 주52시간제는 적절하지 않다.
- ⑦ 남성 중심의 가족 호칭을 변경해야 한다.
- ⑧ 게임중독은 질병이다.
- ⑨ 선의의 거짓말은 정당하다.
- ⑩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1회전).

### 글쓰기와 발표

친구들의 글쓰기와 발표 실력을 버리는 교양 수업은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계획서도 써보고 수없이 많은 수정과 퇴고의 과정을 거쳐 글을 완성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글을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은 되지만 서로의 글보다 더 좋은 자극제는 없습니다. 이 수업의 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주제 발표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도, 생각도, 전달하는 방식도 다 달라서 사람에게 주신 다양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중간에 대답해주고 웃어주는 걸 보면, 발표 끝에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걸 보면 선후배를 뛰어넘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친구들의 삶을 그려봅니다.



주제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나무는 자라나면서 나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나무에 한결, 두껍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나이에는 그 나무를 죽을 때까지 든든하게 지탱해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과 경험들이 그 사람을 만들고 때로는 그 사람을 지켜준다. 갓난 아기에서 어린이가 되어 청소년으로 자라나 어른이 되기까지 나이를 먹으며 수많은 금이 가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지낸다. 그리고 결국엔 어른이 되어 꽃을 피운다. <글쓰기 수업 중 발췌>

# BOOK

## 책읽기의 즐거움

독서클럽, 박학심문, 독서마라톤

샘물 국어는 교과 수업 외에도 독서클럽, 박학심문, 독서마라톤을 통해 독서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독서클럽

독서클럽은 7~11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매주 1시간씩 책을 읽는 학생자율활동입니다. 학년별로 10~30권의 책이 추천되고 학생들은 이 중에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 읽습니다. 이를 위해 15명의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나눕니다. 올해부터는 학생이 리더인 독서 소그룹모임을 신설하고 앞으로 30팀 이상으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 박학심문(博學審問)

박학심문은 '널리 읽고 깊게 질문하자'라는 뜻으로 학생에게 권장도서 목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7개 분야, 4개의 난이도로 책을 분류하여 200권의 책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학 분야 200권, 그 밖의 6개 분야 200권을 선정할 예정이며 목록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독서마라톤

독서마라톤은 독서클럽, 권장도서목록 등과 연계하여 읽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약 10개월의 정해진 기간 동안 읽을 책의 분량을 정하여 읽습니다. 코스는 총 7개로 씨앗(1,000쪽)/새싹(3,000쪽)/들꽃(5,000쪽)/냇물(10,000쪽)/바람(15,000쪽)/사자(21,097쪽)/월계관(42,195쪽)이 있습니다.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마라톤은 분량과 상관없이 완주자 전원을 시상합니다.



